

# SNUAC Brown Bag Seminar Series, Spring 2022

## 한중일 산악문화 비교: 지리산, 태산, 후지산·하쿠산의 산악신앙과 역사성

박정원

세계 모든 나라는 고대부터 전승되어온 고유의 산악신앙을 지니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유사하면서도 조금 다른 산악신앙을 나타낸다. 한국의 산악신앙은 단군신화부터 시작해서 박혁거세, 최영, 단종 등을 거쳐 근현대의 인물까지 산신의 형태를 띤다. 단군신화는 일종의 건국신화이지만 전형적인 산신의 형태를 띤 산악신앙이다. 우리나라는 산마다 조금 다르지만 각각의 산신이 좌정해 있으며, 그 산신에게 매년, 혹은 계절마다 산신제를 지낸다. 지리산에는 마고할미부터 마야부인까지 좌정해 있다. 좌정한 신들은 전부 민중들의 신앙대상이다. 실존 인물도 있지만 상상의 인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혹은 민중이 존경하고 보호해주고 싶은 인물이 좌정하는 경우도 있다. 현대 들어서는 박정희와 노무현 대통령이 산신의 형태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중국은 태산이라는 오악신앙이 산악신앙의 바탕이다. 도교와 불교의 혼합적인 형태를 띤 산악신앙이다. 도교는 중국 서민들에게 절대적 영향을 미쳤고, 미치고 있다. 도교 최고의 신은 옥황상제. 옥황상제는 어느 산에 가더라도 볼 수 있다. 태산은 옥황상제와 더불어 다양한 산악신앙이 존재한다. 일본은 최고의 산 후지산과 하쿠산의 산악신앙이 눈에 띈다. 이들 동아시아 3개국 이 지닌 산악신앙의 공통점은 무엇이며, 또한 차이점은 무엇인지, 숭배대상이 되는 개별적인 산신과 이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박정원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며, 현재 국립등산학교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993년 조선일보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한 이래, 2006년 월간<山>으로 옮겨 편집장과 선임기자 생활을 30여년 했다. 월간<山>에서 기자생활을 하는 동안 산악신앙과 산악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세계 50여 개국의 산과 여행지를 방문하면서 산악신앙과 산악역사에 관한 기사를 썼다. 산악신앙은 전 세계의 공통적인 현상이었으나 기독교가 서구 문명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유일신으로 인해 산악신앙은 쇠퇴하면서 전통의 한 형태로만 존재해 왔다. 중국을 수십 차례나 방문하면서 파악한 중국의 산악신앙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도 예외 아니다. 이들 두 나라의 공통점은 유일신인 기독교의 세력이 별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다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비상임이사과 국립공원공단 문화사업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중국 오악기행>(2021) <신이 된 인간들: 한국의 산신이야기>(2020) <내가 걷는 이유>(2017) <옛길의 유혹, 역사를 탐하다>(2015) 등이 있다.

**일시: 2022년 6월 8일 (수), 12:00-13: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삼익홀 (220호)**